



브릿지아프리카프로그램 현황보고서 2018

4 QUALITY
EDUCATION



유네스코브릿지
UNESCO Bridge of Korea

브리짓리아프리카프로그램 현황보고서 2018 (Bridge Africa Programme Monitoring Report 2018)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독립된 출판물로서, 브리짓리아프리카프로그램의 협력 파트너인 6개 아프리카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와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물입니다. 이 출판물에 사용된 명칭과 소개된 자료 등은 특정 국가나 영토, 도시, 지역, 기관의 법적 지위 또는 그 국경이나 경계의 획정에 대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 교육부의 지원으로 출판되었으며, 보고서 내에 포함된 내용 및 의견은 아래의 7개 유네스코 국가위원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갖습니다.

공동 발간

유네스코레소토위원회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
유네스코말라위위원회
유네스코보츠와나위원회
유네스코스와질란드위원회
유네스코잠비아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개발협력본부 브리짓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우편번호 04536

이메일: afr.team@unesco.or.kr

전화: 02. 6958. 4272

홈페이지: <http://unesco.or.kr>

한국어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

펴낸이: 김광호

기획: 브리짓팀

번역: 김예송

ISBN: 978-89-94307-77-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등록번호: YT-2018-RP-1

디자인·인쇄: 디자인프리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

브리짓리아프리카프로그램 현황보고서 : 2018/
저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서울]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유네스코브리짓, 2018

p. ; cm

ISBN 978-89-94307-77-0 03370 : 비매품

교육 정책 [教育政策]

371-KDC6

379-DDC23

CIP2018020041

발간사



김광호
(Mr. Kwangho Kim)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대한민국

2015년 세계교육포럼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구체적인 이행 가이드라인인 ‘교육 2030 실행계획(Education 2030 Framework for Action)’이 채택되었습니다. 교육 2030 실행계획은 국제사회의 앞선 교육개발 의제였던 유네스코의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과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성과를 평가하고, 2030년까지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 2030 실행계획은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공교육 밖 전 세대의 학습자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브릿지아프리카프로그램(Bridge Africa Programme, 이하 브릿지 사업)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는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권 향상을 위해 2010년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브릿지 사업은 국제사회의 교육의제와 파트너국의 교육정책, 지역사회의 수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그 결과 브릿지 사업은 현재 아프리카의 6개 파트너국(레소토, 르완다, 말라위, 보츠와나, 스와질란드, 잠비아)과 협력하여, 지역학습센터를 기반으로 전 세대의 교육소외계층에게 유아교육, 문해교육, 직업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0년 브릿지 사업이 시작된 이래,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파트너국의 지역사회와 정부를 잇는 교량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아프리카 현장에 파견된 60여명의 브릿지 활동가와 프로젝트매니저들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현지 문화를 익히면서 그들의 교육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스스로 배움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캠페인과 인식제고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배움에 대한 의지가 확인된 지역에서는 양질의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학습센터를 건립하고 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제공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브릿지 사업은 2018년 현재 아프리카 6개 국가에서 13개의 브릿지 지역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사업은 그 동안 많은 변화를 거쳐왔고 앞으로도 현재의 모습에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파트너국과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외된 주민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브릿지 사업의 일관된 목표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브릿지아프리카프로그램 현황보고서 2018〉은 브릿지 파트너국들이 쌓아온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상호 공유하고 학습함으로써 더 나은 브릿지 사업을 만들어가도록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보고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단독이 아니라, 6개 아프리카 유네스코국가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배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를 통해 지난 7년간 브릿지 사업이 만들어낸 성과와 해결해야 하는 도전 과제를 함께 되짚어보며 사업의 발전 방향을 찾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이 보고서가 브릿지 사업의 미래 파트너들과 새로운 독자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 영감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네오 보사
모디마와네**
(Ms. Dineo Bosa
Modimakwane)

유네스코보츠와나
위원회 사무총장

보츠와나

보츠와나가 브릿지아프리카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은 큰 영광입니다. 유네스코보츠와나위원회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의 협력으로 맺어진 결실들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브릿지아프리카프로그램을 통한 양국의 파트너십은 그간 보츠와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마오타테(Mmaothate) 지역사회에 한 줄기 빛과 희망이 되었습니다.

보츠와나는 장기간 정책적 문제로 인해 마오타테 마을의 잠재적 학습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몬와나(Monwane)와 떼베삿스와(Thebephatshwa) 지역의 학교에 다니고자 했지만, 대다수가 경제적이며 사회문화적인 장벽에 가로막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학업을 중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유네스코보츠와나위원회는 브릿지아프리카프로그램이 학교 제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지역주민들의 교육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써준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외되었던 주민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유네스코보츠와나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2030 의제의 이념과 일치하는 브릿지 보츠와나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전념할 것입니다.



빨레사 몬찌
(Ms. Palesa Montsi)

유네스코레소토
위원회 사무총장

레소토

레소토 정부와 국민은 레소토의 취약계층과 빈곤층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대한민국 교육부에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 2010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레소토위원회는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외곽 지역에 위치한 세 개의 마을에서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주민들이 교육의 기회와 더불어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레소토의 작은 시골마을 하무추(Ha Motsu) 마을의 지역대표인 맘빠샤 모쭈(Mampesa Motsu)씨는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2016년 말라위에서 개최된 브릿지아프리카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다른 나라의 지역학습센터 운영 경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브릿지 지역학습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디피링(Liphiring)과 하무추(Ha Motsu), 하떼꼬(Ha Teko) 마을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지원으로 지역학습센터가 건축되었고, 센터에서 제공하는 유아교육, 문해교육,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브릿지아프리카프로그램은 레소토가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양질의 교육)을 달성하고 빈곤을 퇴치하는 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엠마뉴엘 콘도웨
(Mr. Emmanuel Kondowe)
유네스코말라위위원회
사무총장 권한대행

말라위

브리티아프리카프로그램은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양질의 교육)을 달성하는 데 있어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목표 1번(빈곤퇴치)과 지속가능발전목표 5번(성평등)의 달성에도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 주민들은 원조의 수동적 수혜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리티아프리카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은 브리티 말라위 프로젝트의 적극적인 참여자이자, 선도자, 그리고 헌신적이며 의식 있는 행위자로 거듭났습니다. 주민들은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개발에서부터 센터 운영진의 리더십 강화와 지역주민의 참여 증진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스스로 준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서 브리티 활동가와 프로젝트매니저 등 마을에서 함께 생활하며 일해준 모든 한국 청년들의 노력은 우리 말라위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브리티아프리카프로그램이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들의 협력모델로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고 유네스코의 각종 사업을 공동으로 진전시켜 나갈 수 있는 최고의 모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엘리파즈 바히지
(Mr. Eliphaz Bahizi)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
사무총장

르완다

브리티 르완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준 르완다 교육부와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게세라 시(Bugesera District), 그리고 브리티자립위원회의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르완다의 교육개발전략인 <경제개발 및 빈곤감소 전략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Strategy)>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르완다 국민 모두가 균등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교육 프로그램은 <경제개발 및 빈곤감소 전략>의 초석입니다. 이 전략의 비전은 모든 아이들에게 9년 과정의 양질의 무상 기초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초교육 프로그램은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중등교육(직업훈련, 성인문해교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아이의 교육적 성취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르완다의 노력에 지원의 손길을 내밀어 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합니다.



헤이즐 중구
(Ms. Hazel Zungu)
유네스코스와질란드
위원회 사무총장

스와질란드

브리티아프리카프로그램은 스와질란드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브리티아프리카프로그램 덕분에 그동안 교육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교육’이 아니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교육 시설에서, 새로운 교재로, 훈련된 교사들에게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 내 전반적인 교육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스와질란드가 브리티 프로젝트를 통해 받은 최고의 혜택은 지역학습센터를 통한 비형식중등교육(Non-formal Secondary Education)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브리티 스와질란드 프로젝트에 유아교육, 문해교육,

직업교육훈련에 이어 네 번째 요소를 추가하자는 우리 측의 제안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수용해준 덕분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결과 스와질란드는 중등교육의 높은 중퇴율로 인한 심각한 교육 격차 문제에 대처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스와질란드는 브릿지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2021년 이후에도 지역학습센터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센터 건축 및 운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지역사회와 브릿지자립위원회가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브릿지자립위원회는 브릿지 프로젝트와 스와질란드 정부 간의 튼튼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사업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와질란드 국민에게 모두를 위한 교육과 지속가능발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비아

잠비아 제3차 국가실행계획(2011-2017) 기간의 교육목표 중 하나는 성인문해율 증가입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교육에 투입하는 예산이 부족해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잠비아 문해교육 목표는 잠비아 국민들, 특히 학교에 가 본 적이 없거나 중도에 포기한 이들에게 문해능력과 기술능력을 길러주고, 이들이 궁극적으로는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찰스 은다칼라
(Dr. Charles Ndakala)
유네스코잠비아위원회
사무총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브릿지아프리카프로그램은 잠비아가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양질의 교육)을 실현하는 데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시의적절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브릿지 잠비아 프로젝트는 유네스코잠비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잠비아의 중앙 및 지방 정부 관계자들부터 시민단체들에 이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공동의 사업입니다.

브릿지 잠비아 프로젝트는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포용적이고 균등한 양질의 교육 기회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특히 질 높은 기술교육과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성인문해율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브릿지 잠비아 프로젝트는 잠비아 정부가 시행하는 인문교육-직업훈련 연계 교육 방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인문교육과 더불어 재봉 및 벽돌 미장과 같은 직업훈련을, 성인문해 강사들은 정보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브릿지 프로젝트는 대다수 교사조차도 근무를 기피하는 시골 마을에서 이뤄지고 있기에, 이 같은 대의에 동참하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목 차

I. 요약	10
II. 브릿지아프리카프로그램 개관	14
III.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20
IV. 성과와 파급효과	23
1. 브릿지아프리카프로그램 성과	24
2. 국별 프로젝트 성과	
1) 보츠와나	26
2) 레소토	29
3) 말라위	32
4) 르완다	36
5) 스와질란드	39
6) 잠비아	43
V. 시사점 및 교훈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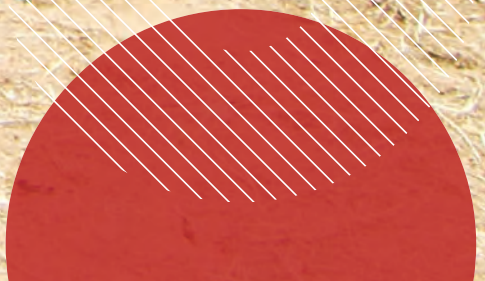




요약



● 말라위 나피니 지역학습센터의 교사와 학생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말라위위원회



I

요약

브리티아프리카프로그램은 지난 2010년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년 간 브리티아프리카프로그램은 국제사회 교육의제의 우선순위 변화와 파트너국 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학습센터를 통한 비형식교육(유아, 문해, 직업교육훈련 분야) 지원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브리티아 사업은 대한민국 교육부와 기업, 개인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총 8개의 파트너국(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르완다, 말라위, 보츠와나, 스와질란드, 잠비아, 짐바브웨)과 협력하여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 현재 브리티아프리카프로그램은 레소토, 르완다, 말라위, 보츠와나, 스와질란드, 잠비아에 총 13개의 지역학습센터를 운영하며 그들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브리티아프리카프로그램은 교육기회로부터 소외된 지역에 지역학습센터를 세우고 지역주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브리티아프리카프로그램은 지역학습센터의 구축과 운영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센터에 대한 주인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일부 마을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센터의 부지를 제공하고, 직접 센터의 건축과 유지 보수 과정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브리티아프리카프로그램은 유아교육과 문해교육, 직업교육훈련 등 크게 3개 영역의 교육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지역학습센터에서 어떤 종류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지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노동시장과 지역적 수요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만약 파트너국에 특정한 교육 목표나 의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스와질란드에서는 높은 중등교육 중퇴율을 고려하여, 공교육 이탈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등교육 자격시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말라위의 나미양고(Namiyango) 지역학습센터에서는 장애우 학습자들을 위한 별도의 문해교육과 재봉(tailoring) 기술교육을 편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브리티아프리카프로그램은 지역학습센터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비아의 네가-네가(Nega-nega) 지역학습센터에서는 주변 공립학교 교사들을 초대해 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수준을 높이고 있으며, 일부 파트너국의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센터의 강사 급여를 지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브리티아프리카프로그램은 각 지역 교사들의 수준과 필요 등을 고려하여 교사들에게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교재를 인쇄하고 보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비형식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년 간 브릿지아프리카프로그램은 약 20여 개의 지역 사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학습센터 활동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축적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부 센터들은 자료 수집 역량이 부족했고, 일부는 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 보고서에 지난 8년간의 활동 성과를 담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파트너국들은 이 보고서를 위해 2017년도 정량/정성 성과를 수집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었습니다. 종합된 성과에 따르면, 2017년에는 총 6개국, 13 개의 지역학습센터에서 약 2,000여 명의 학습자들이 브릿지아프리카프로그램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0여 명의 교사들이 역량강화 연수를 받았으며, 약 12,000 여 권의 교재가 인쇄되어 보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브릿지아프리카프로그램에 참여한 파트너국 정부와 각 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협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브릿지아프리카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발족한 범정부 협의체인 브릿지자립위원회(Bridge National Committee)는 지역학습센터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국가 교육정책과 일관된 문해교육, 유아교육,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교재를 배포하고, 지역주민들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는 등 폭넓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한편,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 리더들과 학부모, 교사, 학습자 등이 참여하는 지역학습센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센터의 실질적인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등을 책임져왔습니다.

이러한 교육 활동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삶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국가와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에 따라 브릿지아프리카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성과들은 서로 다른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수록 사업의 성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이야기들은 보고서의 이어지는 장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브릿지아프리카 프로그램 개관

스와질란드 엠흘랑에니 센터의 한 성인 문해 학습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스와질란드위원회



III

브릿지아프리카프로그램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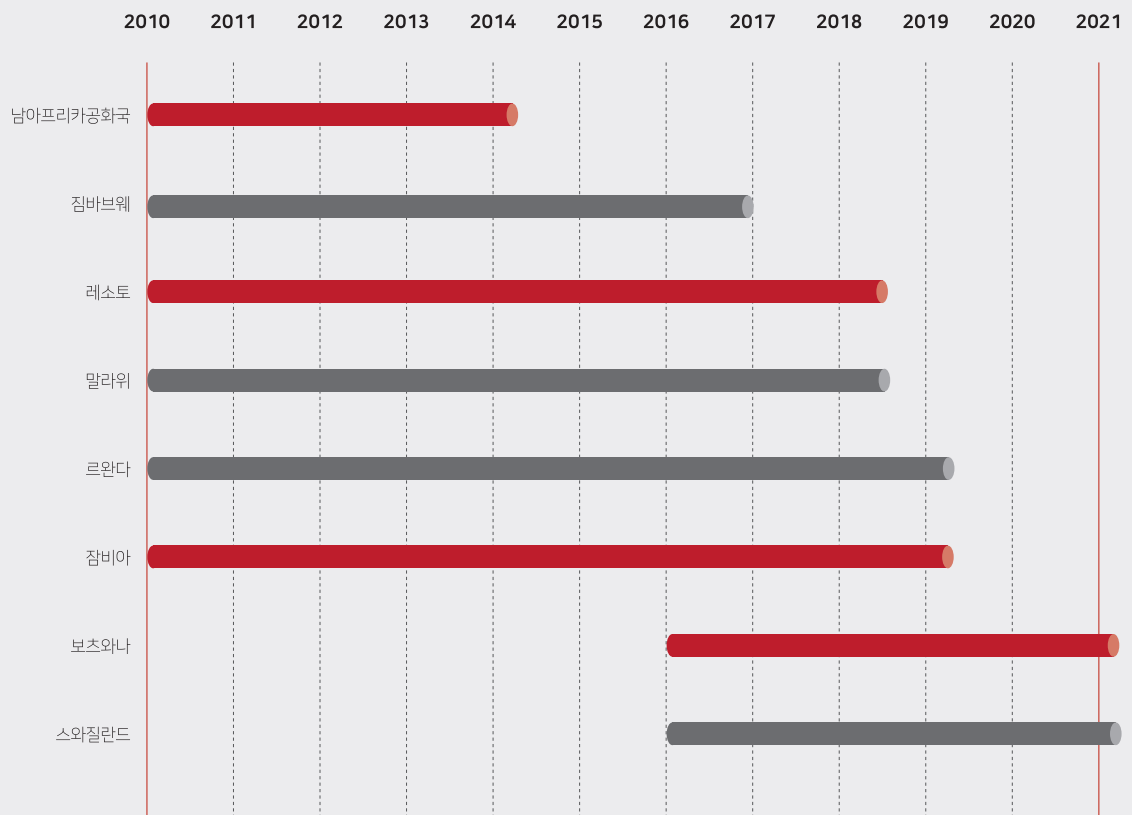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난 2010년 국제사회의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목표에 발맞추어 브릿지아프리카 프로그램(Bridge Africa Programme)을 시작한 이래,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달성에 기여하고자 브릿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릿지아프리카프로그램의 목적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교육소외계층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브릿지아프리카프로그램은 파트너국에 지역학습 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브릿지아프리카프로그램은 파트너국의 현지 상황과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프로그램이 도입된 2010년에는 대한민국의 청년들(브릿지 활동가)을 아프리카 6개국(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르완다,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에 파견하여, 2년 동안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생활습관과 문화, 교육 수요 등을 파악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악된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교육의 필요에 따라 문해교육을 시작으로 유아교육과 직업교육훈련으로 점차 교육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장시켜왔습니다.

현지 교육 수요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브릿지아프리카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활동가가 아닌 프로젝트매니저를 파트너국에 파견 하였습니다. 프로젝트매니저들은 파트너국의 교육부에 소속된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지역학습센터를 활용한 유아교육, 문해교육,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설계하고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수행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파트너국의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는 프로젝트매니저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주인인식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별 브릿지자립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2010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총 8개국의 파트너국이 브릿지아프리카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각국의 연도별 참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1. 브릿지아프리카프로그램 파트너국별 사업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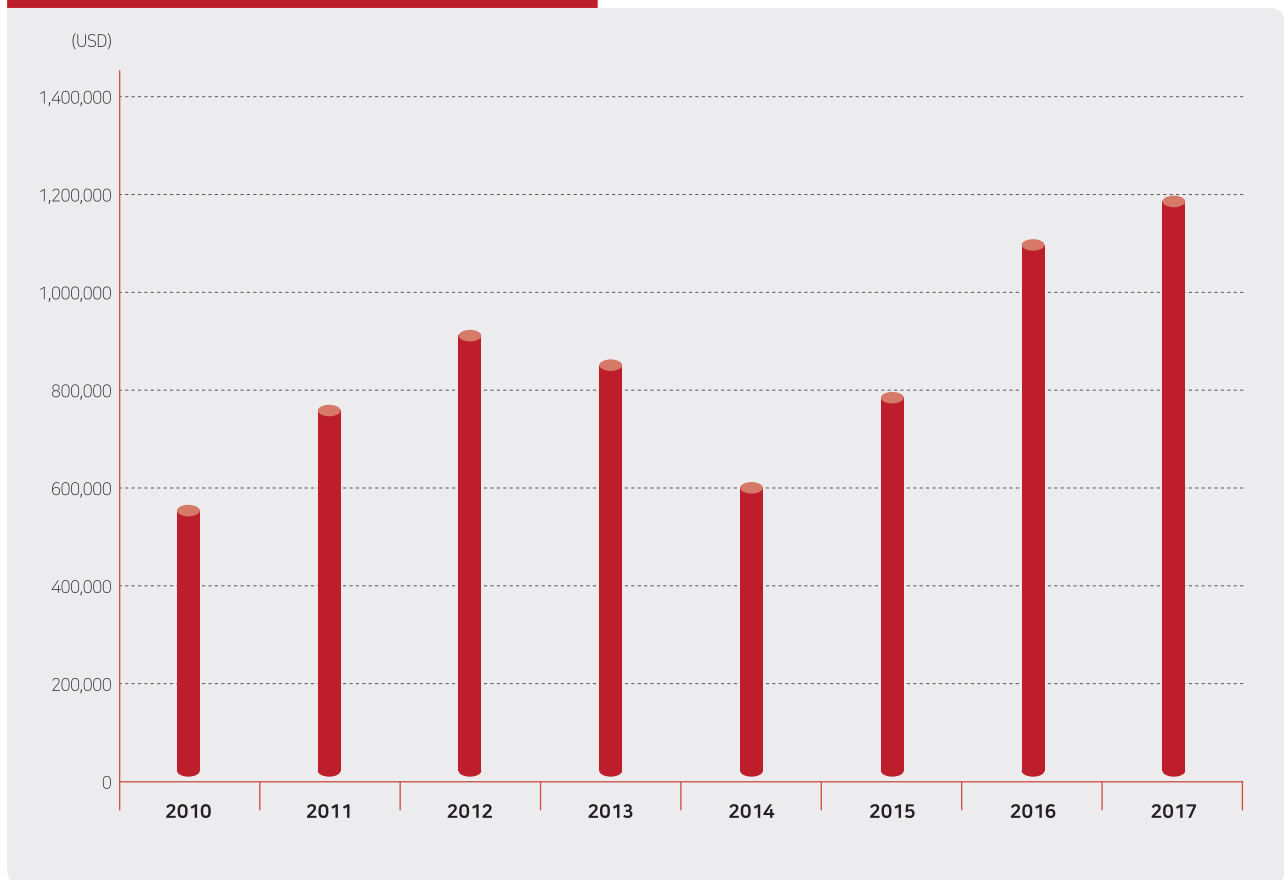
2016년 2월에는 브릿지 아프리카 컨퍼런스(Bridge Africa Conference)가 말라위의 수도 릴롱웨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8개 파트너국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7년간 각국에서 진행된 개별 브릿지 프로젝트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브릿지아프리카프로그램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릴롱웨 커뮤니케(Lilongwe Communiqué)>를 채택하고, 사업의 발전을 위한 서로의 책임을 공유하며 8개의 전략방향(Strategic Direction)을 설정 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브릿지아프리카프로그램의 예산은 2010년 이후 일부 등락이 있었지만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학교,

단체, 기업의 후원금 그리고 정부(교육부)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지원을 받았습니다.

브릿지아프리카프로그램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아프리카 8개국의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각국의 프로젝트들은 국가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교육 활동들로 구성되었으며, 지역학습센터의 운영은 국가 상황에 따라 파트너국 정부가 담당하거나 해당 지역 공립학교 혹은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브릿지 지역학습센터는 공통적으로 지역사회의 교육소외계층에게 유아교육, 문해교육, 직업교육훈련을 포함한 비형식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림 2. 2010-2017년 브릿지아프리카프로그램 연도별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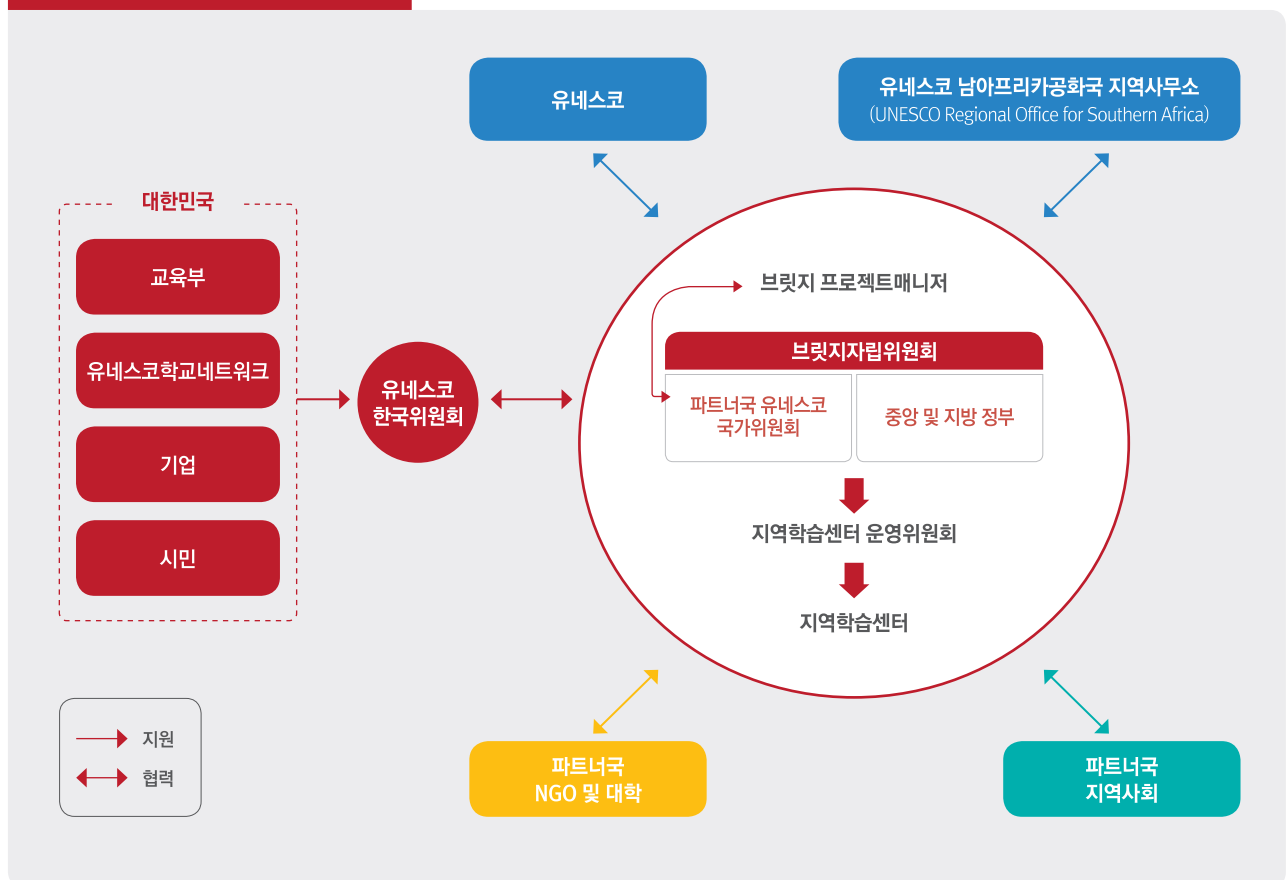


지역학습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폭넓은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교육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배경과 <킬롱게 커뮤니티>의 전략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파트너국들은 브릿지자립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브릿지자립위원회는 파트너국의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지의 프로그램 핵심 파트너인 중앙 및 지방정부, 유아교육, 문해교육, 직업교육훈련의 각 분야 전문가, 지역 공동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범정부 협의 체계입니다. 지금까지 브릿지자립위원회는 국별 브릿지 교육사업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등 현지 사업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각 지역학습센터 별로 독립된 지역학습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또한 브릿지아프리카프로그램의 운영 원칙 중 하나입니다. 지역학습센터 운영위원회는 마을의 지도자들과 교사,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되어 정기 회의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관련 현안들과 지역학습센터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림 3. 브릿지아프리카프로그램의 구조





fish

fish

bolo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레소토 디피링 지역학습센터에서
유아수업을 받고 있는 아이들,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레소토위원회

III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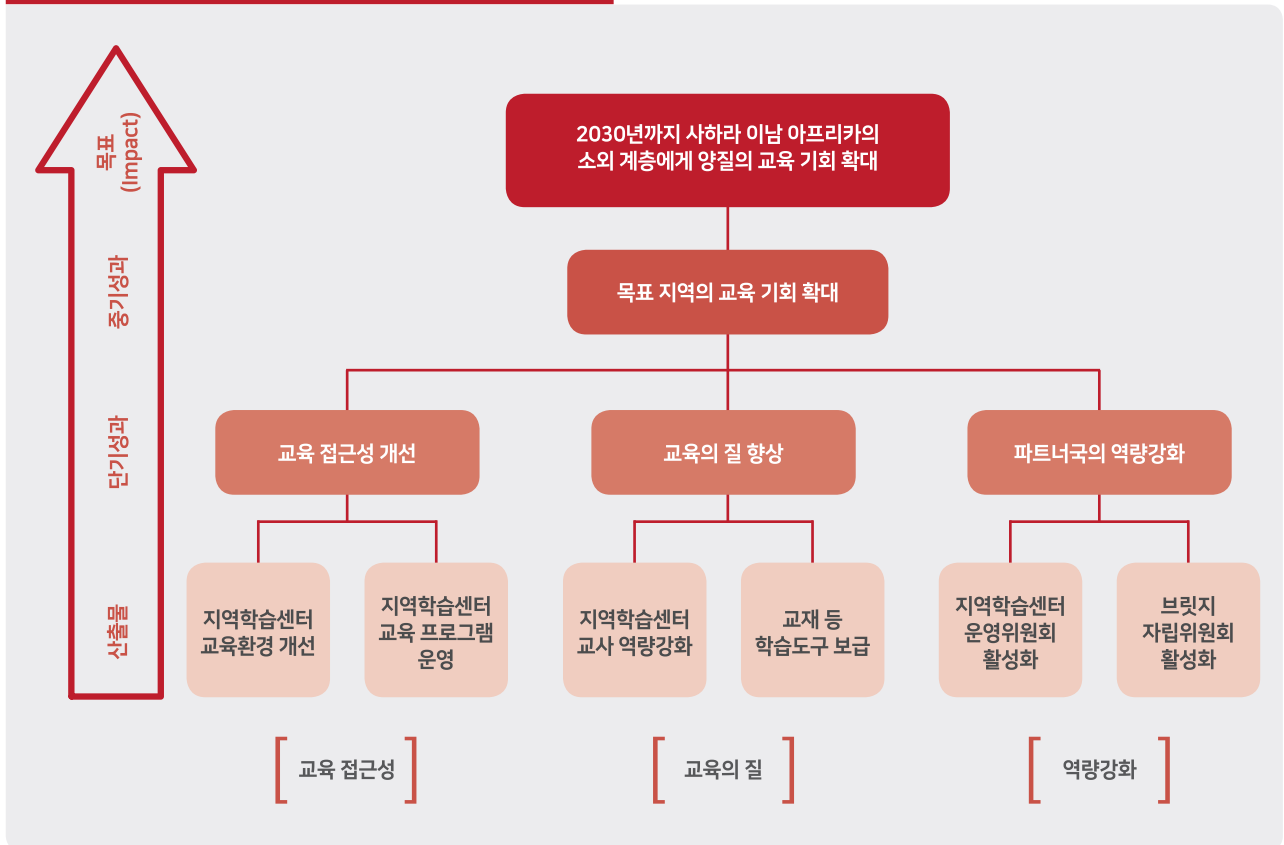
교육 2030 실행계획(Education 2030 Framework For Action)은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확립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간의 파트너십을 증진하고 새로운 성과중합체계를 확립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경험적 증거에 기반을 둔 의미 있는 교훈을 도출하여 정책과 전략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브리타니아프리카프로그램은 파트너국의 유네스코 국가위원회가 함께하는 참여적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어, 국별 프로젝트 과정에서 얻은 경험 및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학습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4>는 브리타니아프리카프로그램의 성과모형(Results Framework)입니다. 파트너국들은 브리타니아프리카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접근성과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프로젝트 운영의 자립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소외계층에 양질의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브리타니아프리카 프로그램은 지역학습센터의 건립과 교육 환경 개선, 유아교육, 문해교육,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교사 역량 강화 워크숍과 교보재 보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과정에서 브리타니아자립위원회와 지역 학습센터 운영위원회의 역량강화를 통해 파트너국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효과적인 프로젝트의 실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파트너국에서 시행하는 개별 브리타니아 프로젝트들에 대한 운영과 모니터링은 변화 이론(Theory of Change)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변화 이론은 모니터링과 평가의 도구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2017년에는 프로젝트 관련 문서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 브리타니아 프로젝트에 변화 이론을 적용하여 발전시켰습니다. <그림 5>는 브리타니아 스와질란드 프로젝트에 적용된 변화 이론 사례입니다. 이 변화 이론은 다양한 교육 및 운영 활동을 시각화 하여, 합의된 성과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각각의 활동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4. 브리타니아프리카프로그램 성과모형(Results Framework)



산출물과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주요 지표가 선정된 후에는 파트너국 유네스코 국가위원회가 관련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첫 번째 단기 성과 지표인 '교육 접근성 확대'는 '지역학습센터 개선 건수'와 '개별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습자 수'를 지표로 삼았으며, 두 번째 단기 성과 지표인 '교육의 질 향상'을 측정하기 위해 '교사훈련에 참여한 교사의 수'와 '인쇄 및 보급된 교재 수'를 지표로 활용하였습니다.

브리타니아프리카프로그램은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었지만, 2016년 브리타니아 아프리카 컨퍼런스를 계기로 파트너국들이 좀 더 체계적인 결과 기반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모니터링 체계의 부재로 인해 이 보고서가 다루는 자료의 범위와 신뢰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브리타니아 파트너국의 적극적인 의지로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주요 지표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브리타니아프리카프로그램 현황보고서 2018〉은 각 파트너국의 연차보고서(National Annual Report)에 수집된 데이터와 이해관계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연차보고서는 〈릴롱게 커뮤니티〉를 통해 각 파트너국들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국별 성과에 대한 종합 보고서입니다.

그림 5. 변화 이론 모형 - 브릿지 스와질란드 프로젝트



본 보고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보고이며, 두 번째로 각 국가의 개별 프로젝트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2010년 이후로 8개 파트너국들의 사업 시기가 달랐던 만큼, 이 보고서는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레소토, 르완다, 말라위, 보츠와나, 스와질란드, 잠비아 이상 총 6개국의 브릿지 프로젝트에 관한 평가를 담았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개별

프로젝트가 나타내는 특색 있는 성과를 서술하였으나, 파트너국이 제공하고 검토한 일부 자료는 통계의 정확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과와 파급효과


(Outcome and Impact)




르완다
우루무리
(Urumuri)



잠비아
네가-네가
(Nega-nega)



보츠와나
마오타테
(Mmaothate),
뉴까디
(New-Xade),
카카에(Kacgae)



레소토
디피링
(Liphiring),
하떼꼬
(Ha Teko),
하무추
(Ha Motsu)



스와질란드
구게자
(KuGeza),
엠흐랑에니
(Emhlangeni)



말라위
웨라(Mwera),
나피니
(Naphini),
나미양고
(Namiyango)



IV

성과와 파급효과 (Outcome and Impact)

1. 브리짓아프리카프로그램 성과

(자료 수집 기간: 2017년 1월-10월)

국가	지역학습센터	확립 연도	교육 활동에 대한 접근성				교육의 질 개선	
			유아교육	문해교육	직업교육훈련	기타 (학교밖 아동 교육 학습자, 방과후 학습자 및 비형식중등교육 학습자)	교사연수에 참여한 교사의 수	인쇄 및 보급된 교재 수
보츠와나	마오타테 Mmaothate	2016	33	39	-	87	61	-
	뉴까디 New-Xade	2016						
	카카에 Kacgae	2016						
레소토	디피링 Liphiring	2012	146	17	32	-	10	180
	하메코 Ha Teko	2015						
	하무추 Ha Motsu	2013						
말라위	뽤라 Mwera	2014	170	93	20	786	20	11,000
	나피니 Naphini	2011						
	나미양고 Namiyango	2013						
르완다	우루무리 Urumuri	2016	164	-	-	6	-	829
스와질란드	구게자 KuGeza	2016	64	38	41	96	30	-
	엠흘랑에니 Emhlangeni	2016						
잠비아	네가-네가 Nega-nega	2015	-	57	51	-	45	-
			577	244	144	975	166	12,009

대다수의 브릿지 파트너국에는 국가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역학습센터가 있지만 그 편차는 매우 큼니다. 말라위의 경우 지역학습센터가 2만여 개에 달하는 반면, 어떤 국가는 30여 개에 불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브릿지 지역학습센터가 여타의 학습센터와 갖는 차이점은 하나의 단일 센터에서 유아교육, 문해교육, 직업교육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말라위의 브릿지 나피니 센터는 유아교육, 문해교육, 직업교육훈련 외에 방과후 수업을 운영하고 있고, 스와질란드의 지역학습센터는 비형식중등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파트너국들은 이같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성공 요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영유아부터 성인 비문해자까지 이르는 전 세대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릿지아프리카프로그램의 성과는 국가의 교육정책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 예로 유아교육의 발전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레소토 정부는 지역학습센터의 유아교육 교사들을 훈련하고 직접 그들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학습도구를 비롯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레소토의 브릿지 지역학습센터의 유아교육은 많은 등록자수를 보이며 다른 국가보다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브릿지아프리카프로그램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파트너국 정부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지역학습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개별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브릿지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각 파트너국에 브릿지자립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더 상세한 설명은 페이지 16-17 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량적 성과와 더불어 브릿지아프리카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생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문해교육을 받은 학습자들은 단순히 읽고 쓰는 방법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건문을 넓히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혹은 장래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학습자들은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여 더 나은 직업을 가지거나 독자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브릿지아프리카프로그램의 성과와 파급효과는 수치만으로 온전히 담아낼 수 없기에, 다음 장에서는 사례 중심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국별 프로젝트 성과(Outcome)

보츠와나

성과 개요

a. 프로젝트 개요

브릿지 보츠와나 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 예정인 5개년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2016년 이후로 보츠와나는 마오타테(Mmaothate) 마을을 포함한 소외된 지역에 양질의 유아교육과 학교 밖 교육 및 훈련(Out-of-School Education and Training)을 제공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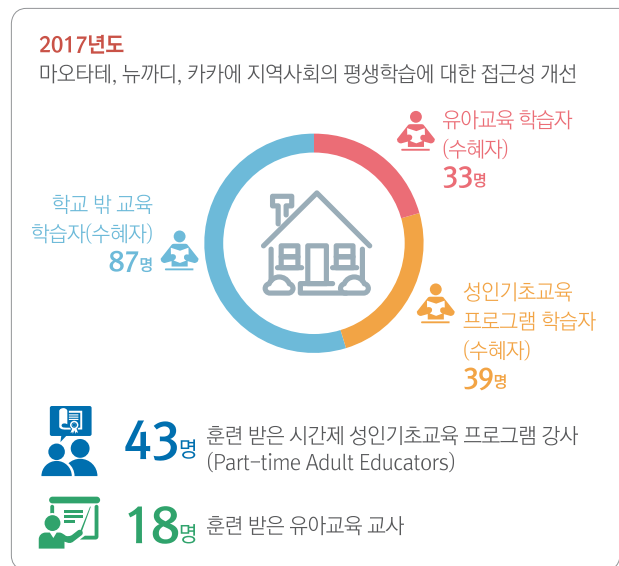
특히 마오타테 센터는 마을 내 교육 시설이 없었던 초기 장벽을 극복하고, 해당 지역사회에서 '자립'의 아이콘이 되어 프로젝트 지속가능성의 희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마을은 중앙이나 지방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센터를 운영 중이며,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수준의 기초교육에 학습자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등록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b. 보츠와나 브릿지 지역학습센터: 마오타테 (Mmaothate), 뉴까디(New-Xade), 카카에 (Kacgae)

마오타테와 뉴까디, 카카에 세 개의 브릿지 지역학습센터는 교육 서비스가 제한적인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오타테 센터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유일한 교육 시설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이뤄지는 수업은 취학 연령 전인 아동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마오타테 센터에서는 중퇴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다시 공교육 제도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성인 비문해자들에게는 읽고 쓰는 능력을 가르칩니다. 뉴까디 센터와 카카에 센터는 보츠와나의 소수민족 중 하나이자 부시맨(Bushmen)으로 알려진 바사르와(Basarwa) 지역사회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세 곳의 센터 중에서 마오타테 센터는 지역사회가 보여준 능동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규모 면에서도 주목할 만합니다. 초기에는 성인문해수업만 제공되었으나, 이후에는 중퇴 아동들을 위한 수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마오타테 센터는 (1) 유아교육 프로그램, (2) 성인기초교육 프로그램(Adult Basic Education Programme), (3) 아동을 위한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Out-of-School Education for Childre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고령의 주민들까지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이 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마오타테 지역 내 마을 주민들은 배움의 기회를 얻기 위해 브릿지 센터로 발걸음 합니다. 지난 2017년 3월에는 보츠와나 기초교육부가 새로운 지역학습센터의 건축을 위해 4에이커(acre) 크기의 부지를 지원해준다는 협정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상호학습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

a. 교육 접근성 확대

보츠와나에서는 국가의 정착 정책(settlement policy)에 따라 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숫자가 500명을 넘는 경우에만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보츠와나 프로젝트는 이러한 정책을 고려하여, 공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오타테 마을에는 500명에 못 미치는 수인 약 350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대신, 2011년 모로바 은떼쟁(Ms. Moraba Ntheetseng, 지역주민/교사) 씨가 지은 작은 센터만이 지역주민에게 유일한 학습 공간이었습니다.

“마오타테 마을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학교도 이곳에서 12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브릿지 프로젝트 덕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탱크와 두 개의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었고, 학습도구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 센터에서 약 5분 거리에 있는 지역에 새로운 센터를

건축하기 위해 정부의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지역의 큰 발전이었고 신(God)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모로바 은떼쟁 Ms. Moraba Ntheetseng, 지역주민/교사)

2017년에는 마오타테 센터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19명의 학습자들이, 성인기초교육에 39명이, 아동을 위한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에 87명이 등록하였습니다. 마오타테 지역사회는 이 센터를 통해 최대한 많은 주민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닿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에는 마오타테 센터에서 제빵 훈련을 받았던 두 명의 학습자들이 보츠와나 자격증 인증기관에서 공인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b. 튼튼한 파트너십에 기반한 이해관계자들의 기여

브릿지 보츠와나 프로젝트에는 중앙정부 공무원부터 지역주민들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유네스코보츠와나위원회 관계자, 마오타테 지역주민들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온 열정을 쏟았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였고, 유네스코

• 보츠와나의 마오타테 지역학습센터 이양식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보츠와나위원회



보츠와나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매칭 펀드(matching fund)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매일 아침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봉고차를 운전하여 센터로부터 멀리 사는 아이들을 데려옵니다. 이 덕분에 감사하게도 올해에는 32명의 새로운 아이들이 센터로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지역에는 여전히 교육을 받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도 우리 센터로 데려올 수 있는 추가적인 운송 수단(cart)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로바 은떼쟁 Ms. Moraba Ntheetseng, 지역주민/교사)

지역주민들은 새로운 마오타테 센터 건축에 직접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센터가 완공되면 성인들과 그들의 자녀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센터 건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려 합니다.

c. 훈련을 통한 교사역량강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브릿지 보츠와나 프로젝트는 교육

활동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학습센터를 통해 교외 지역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학교 밖 교육 및 훈련(Out of School Education and Training) 소관 정부 부처에서 총 43명의 시간제 성인 강사(Part-time Adult Educators)들에게 교사 연수를 제공하였는데, 이 중 18명에 대한 연수를 브릿지 프로젝트가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현재까지 보츠와나에서 총 1,196명의 시간제 성인 강사들이 성인 문해교육 수업을 하기 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의 주요 목적은 강사들이 영어 독해 능력을 함양하여, 세츠와나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영어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으로 참여한 교사 연수입니다. 이 연수를 통해 저는 수업을 계획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업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고, 건설적이고 효율적인 교수-학습법을 고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연수를 통해 배운 발음 중심 어학 교수법(phonics)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발음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집중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이나 재미를 가미한 학습법과 같은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보이투멜로 쑤쿠리 Boitumelo Xukuri, 뉴세이드 지역학습센터 교사)



● 지역학습센터로 아이들을 운송하는 당나귀 카트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보츠와나위원회

레소토

성과 개요

a. 프로젝트 개요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는 지난 2010년 처음 시작되어 레소토의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프로젝트가 시행된 외곽 지역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좀처럼 닿지 않는 곳입니다. 이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은 교육 받을 권리를 포함한 다른 기초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브릿지 사업을 통해 레소토에서는 특히 유아교육 영역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브릿지 지역학습센터를 중심으로 하무추 지역에서 12명에 불과했던 유아교육 등록자 수가 7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영양가 높은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소(cafeteria)를 확충하여 더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재봉과 가죽공예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더 많은 학습자들에게 교육기회가 생겼습니다. 수업을 수료한 이후, 해당 훈련 자격증 취득이 가능해진 점은 학습자들에게 큰 학습 동기를 제공해줍니다.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교육과정 내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의 이해관계자들은 이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재정적 지원이 2018년을 끝으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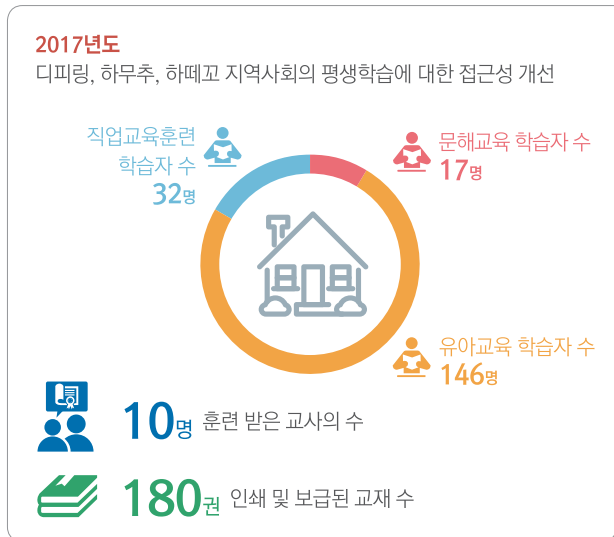
b. 레소토 브릿지 지역학습센터: 디피링(Liphiring), 하무추(Ha Motsu), 하떼꼬(Ha Teko)

디피링 센터는 브릿지 지역학습센터들 중 레소토에서 가장 오래된 곳입니다. 이 센터는 2012년에 건립되었고, 그 이후로 2013년에는 하무추 센터가, 2015년에는 하떼꼬 센터가 차례로 세워졌습니다. 세 곳의 센터는 유아와 문해, 직업훈련 수업을 제공합니다. 이 세 유형 중에서는 유아교육이 가장 활발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총 146명의 아동들이 이 세 곳의 센터에서 유아교육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2017년 하무추 센터에서는 약 60명 이상의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이 수치는 하무추 지역의 6세 이하 아동 인구수를 훨씬 넘는 것으로, 다시 말해 이웃 지역의 아이들도 브릿지 지역학습센터에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소토 정부에서는 유아수업 교사들에게 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등 정부 차원의 유아교육 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가죽공예 수업은 하무추와 하떼꼬 센터에서 운영되며 각각 14명과 24명의 학습자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레소토에서는 국가 자격증 제도가 아직 완벽하게 정비되지 않았기에 학습자들이 지금 당장 공인자격증을 취득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학습자들이 수업을 통해 익힌 기술은 미래에 더 나은 일자리를 얻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디피링 센터에서는 14명의 학습자들이 재봉 수업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인근에 위치한 세 곳의 초등학교 교장들이 이 수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디피링 센터의 재봉 수업에서 만드는 학교 유니폼을 공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상호학습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

c. 아동 급식 제공 프로그램의 파급효과(impact)

유아교육은 단순히 아동 교육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아가 보육과 아동 발달, 소아 보건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브릿지 레스토 프로젝트가 유아교육의 요소 중 하나로 급식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 레스토 하무추 지역학습센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레스토위원회

브릿지 레스토 프로젝트는 현대 그린푸드 기업의 지원을 받아 2016년부터 하무추 센터에서 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아교육 수업에 참가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매일 영양가 높은 아침과 점심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68명의 아이들이 유아수업을 수강하였는데, 하무추 지역의 6세 이하 아동 인구수는 대략 30명으로, 등록된 아동의 반 이상이 타 지역에서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사회에서 브릿지 급식 프로그램에 대해 큰 관심과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곳에서부터 3~5km 정도 떨어진 곳에 다른 세 곳의 유치원이 있습니다. 주변 마을들에서 2세부터 5세까지 약 70여 명의 아이들이 우리 센터로 오고 있습니다. 저는 하무추 센터의 급식 프로그램과 무상 교육 덕분에 센터로 찾아오는 아동의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몰레짜네 찰리 Ms. Mamoletsane Chale, 유아교육 교사)

“ 일반적으로 우리 마을에서는 아이들에게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아직 그만큼 넉넉한 형편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어떤 아이들은 먹거리가 부족해 하루에 한 끼만 먹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센터에 오는 모든 아이들이 매우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이 급식 프로그램이 시작한 이후 아이들이 얼마나 튼튼해지고 성장했는지 직접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브릿지 프로젝트의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 센터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은 지난 1월부터 브릿지 센터에 매달 20란드씩 돈을 내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창문 보수와 같은 센터 유지 비용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마톨랑 음빠또바 Ms. Matholang Mpatoba, 학부모)

하무추 마을 이장 맘빠사 모쭈(Mampasa Motsu) 씨에 따르면, 지역사회 주민들은 브릿지 지역학습센터가 언젠가 정식 학교로 발전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주변 학교들은 너무

멀어서, 안타깝게도 많은 아이들이 초등교육조차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d. 지역사회의 강한 주인 의식

하무추 지역사회는 브릿지 센터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은 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제공했고, 부모들은 이 센터의 유지비용으로 매달 20 란드씩 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무추 센터에는 급식 프로그램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채소 텃밭도 가꾸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센터 주변에 100그루의 복숭아 나무도 심었습니다.

하무추뿐만 아니라 하떼꼬와 디피링 지역사회도 그들의 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달 20 란드를 기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디피링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가공하는 잼과 머핀, 바셀린 로션 등을 판매한 수익금의 일부를 브릿지 센터에 기부하기도 합니다.

• 레소토 하무추 센터에서 유아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레소토위원회



말라위

성과 개요

a. 프로젝트 개요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는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통한 빈곤감소를 목표로, 지난 2010년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브릿지 프로젝트를 통해 말라위의 웨라(릴롱게 지역), 나피니(쑤바 지역), 나미양고(블랜타이어 지역) 세 곳 마을에 지역학습센터가 건립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센터들은 지역 리더, 지역학습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교사를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및 각종 교보재 보급과 같은 지원을 통해 활성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릿지 지역학습센터들은 말라위교육협회(Malawi Institute of Education)나 시(district) 의회, 국립문해센터(National Centre for Literacy and Adult Education),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Service)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 왔습니다. 이 가운데 국립도서관은 브릿지 나피니 센터의 도서관 설립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말라위는 브릿지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부처 간 정책 협력 및 조정 기구인 브릿지자립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b. 브릿지 말라위 지역학습센터: 웨라(Mwera), 나피니(Naphini), 나미양고(Namiyan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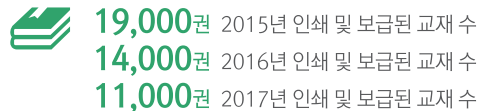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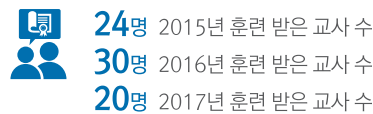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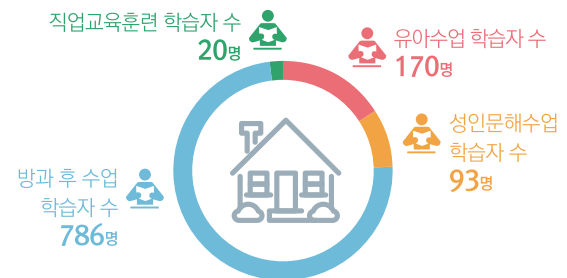
말라위의 브릿지 지역학습센터 세 곳은 현재 모두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웨라와 나피니 센터에서는 성인문해(치체와어, 영어)와 유아교육, 방과후수업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나미양고 센터는 장애가 있는 학습자를 위한 교육 시설로 특화되어, 방과후수업과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웨라와 나피니 센터는 주민이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두 센터에서는 각 마을 이장들이 지역학습센터 운영위원회에 깊이 관여하면서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말라위에는 약 2만여 개의 지역학습센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센터가 공립학교의 교실을 빌려 운영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이나 유아교육 중 한 분야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브릿지 지역학습센터는 하나의 센터에서 유아교육, 문해교육, 직업교육훈련 등 아동과 성인 모두를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17년도

웨라, 나피니, 나미양고 지역사회의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성 개선



상호학습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

a. 지역적 맥락의 반영

지난 2015년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는 말라위의 국립문해센터에서 19,000권의 문해교재(영어, 치체와어)와 교사 지침서를 인쇄하는 사업에 4만 불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말라위에는 8,000여 곳의 치체와어 문해센터와 1,633곳의 영어 문해센터가 있습니다. 브릿지 프로젝트의 지원으로 2016년에는 14,000권의 교재가 인쇄되어 전국 각지의 모든 영어 문해센터에 교재가 보급되었습니다. 교재를 비롯한 학습자료 부족은 비형식교육 부문에서 말라위가 직면한 큰 도전 요소였기에, 브릿지 프로젝트의 지원은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브릿지 프로젝트의 도움으로 우리는 영어 문해교재를 인쇄하여 교사들과 학습자들에게 보급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말라위의 1,633 곳의 모든 영어 문해센터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1레벨의 교재(1) 배포가 완료되었고, 2017년 8월 말까지는 전국 각지에 같은 레벨의 교재(2)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오베 음과위라 Mr. Aubet Mkwawira, 국립문해센터 국가 자원봉사국장)

한편, 브릿지 나미양고 센터는 현지의 지역적 상황과 교육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는 또 하나의 좋은 사례입니다. 나미양고 센터는 블랜타이어의 방궤(Bangwe) 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마을은 장애를 가진 인구율이 말라위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 말라위 나미양고 센터의 문해교재 수여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말라위위원회





• 말라위 나미양고 센터의 학습자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말라위위원회

현재 10세부터 35세 사이 연령대의 총 129명의 학습자들이 해당 센터의 방과후수업과 더불어 직업훈련(재봉)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릿지자립위원회의 지원으로 말라위 직업훈련청 (TEVETA; 말라위 직업 훈련 소관 국가기관)은 나미양고 센터의 장애가 있는 학습자들을 위한 맞춤형 커리큘럼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나미양고 센터의 학습자들은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림 6. 말라위 나피니 센터 인근의 마을 지도



“일반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집에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들은 가족의 도움에 온전히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브릿지 지역학습센터에서 재봉 훈련을 받은 학습자들은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에 모두가 감격하고 있습니다.”

(렉스 칼리마 Mr. Rex T. Kalima, 나미양고 센터 대표)

b. 지역사회의 주인의식

말라위의 나피니 센터는 지난 2010년 좀바(Zomba) 지역에 설립되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주민들은 브릿지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환영했습니다. 마을 이장인 음리마(Mlima)씨는 오두막과 교실, 화장실 등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기부해 주었습니다. 또한 콩과 땅콩, 옥수수 등을 재배할 수 있는 땅을 제공해주었는데, 여기에서 창출된 수익금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쓰였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센터 건축 과정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림 6과 같이, 2017년에는 이웃한 17곳의 마을에서 총 516명의 학습자들이 나피니 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나피니 센터는 성인문해수업과 방과후수업, 유아수업 등을 제공하고 있고, 말라위 국립도서관의 도움으로 643권의 책을 보유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브릿지 프로젝트의 도움으로 나피니 센터에는 많은 가시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며, 주민 대부분이 나피니 센터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17명의 주변 마을 이장들은 격주에 한 번씩 모여 센터 유지 방안과 교육 서비스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브릿지 프로젝트는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이니셔티브 (community-led initiative)이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리더십은 센터 운영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합니다. 또한 브릿지 프로젝트는 세 가지 유형(유아교육, 문해교육, 직업교육훈련)의 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하나의 센터에서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독특합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센터에 오고자 하는 어머니들은 고민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문해수업을 듣는 동안 아이들은 유아수업이나 방과후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브릿지 센터는 모든 세대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열어 놓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몰레라 Mr. David Mulera, 유네스코말라위위원회 사무총장보)

c. 거버넌스(Governance)

2017년도

지역학습센터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리더십 및 운영, 집단 역학, 기록 관리, 보고 등에 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12명

12명의 지역학습센터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정보통신기술(ICT)과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법 훈련을 받았습니다.



2곳

나피니와 웨라 지역학습센터는 제도 구축 및 지역사회기반조직(community-based organizations) 등록, 공동계좌 신설 등에 대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 말라위 나피니 센터에서 회의 중인 지역학습센터 운영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말라위위원회



르완다

성과 개요

a. 프로젝트 개요

2010년 10월, 르완다 교육부의 승인으로 유네스코 르완다 위원회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2014년 연장)하였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두 위원회는 유네스코의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모두를 위한 교육' 사업 국가 조정(EFA National Coordination)에 의해 인증된 지역학습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2010년 처음으로 브릿지 활동가를 르완다에 파견했고, 2015년부터는 브릿지 프로젝트 매니저를 파견했습니다. 2015년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르완다 소재 국제 NGO인 ADRA (Adventist Development & Relief Agency) Rwanda와 협력 하여 2,800권의 교재를 인쇄하고 가치보(Gatsibo) 지역에 보급했습니다. 2016년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 르완다 위원회 간 보다 공식적인 파트너십이 체결되어, 현재 지방 정부와의 협력과 교육부의 승인으로, '빛'의 의미를 지닌 '우루무리(Urumuri)'라는 이름의 브릿지 지역학습센터가 카부무(Kavumu) 마을에 건립 중입니다. 2018년에는 우루무리 센터가 완공 및 운영될 예정으로, 유아교육과 문해교육, 재봉수업 등이 제공될 계획입니다.



• 르완다 카부무 마을의 문해수업에 참여하는 성인 학습자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르완다 위원회

b. 르완다 브릿지 지역학습센터: 우루무리

우루무리 센터는 아직 건축 중이지만, 주민들은 브릿지지역 학습센터 운영위원회를 미리 구성하여 현재 임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 센터에서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유아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세 이상 6세 이하 총 164명의 아동들이 수업에 등록하였습니다.

이 센터는 2015년에 르완다교육위원회(Rwanda Education Board)와 유니세프가 공동 개발한 역량중심교육과정(Competence Based Curriculum)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0분까지 매일 주중에 운영되는 유아수업은 총 6개 영역 - (1) 세상의 발견(discovery of the world), (2) 산술, (3) 언어 및 문해, (4) 창의적 예술과 문화, (5) 신체 및 건강 발달, (6) 사회 정서적 발달 - 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브릿지 센터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릿지 센터에서 제공될 유아교육과 문해수업, 재봉수업은 우리 마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여성들은 가계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은타우하시라 오구스토 Ms. Ntawuhashira Augusto, 마을 이장)

2017년도

카부무 지역사회의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성 개선



164명 유아수업 학습자 수



6명 보육자 수



2,629권 2015년과 2017년 인쇄 및 보급된 교재 수

상호학습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

a. 지역사회의 교육기회 확대

총 1,284명이 거주하고 있는 카부무 마을에는 브릿지 지역학습 센터의 건립 이전까지 유아교육이나 초등교육, 중등교육 시설이 전무했습니다. 그나마 가장 가까운 학교도 1.2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카부무 마을에는 사설유치원 한 곳과, 이웃한 가캄바 마을(Gakamba cell)에는 지역에서 운영하는 단 하나의 보육 시설만이 존재합니다. 그나마도 모두 유료시설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정은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마을에 브릿지 센터가 생긴다는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을의 대다수 아이들은 원비에 대한 부담으로 유치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비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3세 이상 6세 이하 모든 아이들이 하나의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기 때문에 양질의 교육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브릿지 센터의 개소 이후에 아이들은 연령별로 분리된 공간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브릿지 지역학습센터의 건축이 마무리된 이후, 더 넓은 학습 공간과 다양한 학습도구가 생긴다는 사실에 더욱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투이센게 Mr. Thomas Tuyisenge, 보육교사)

우루무리 센터가 조만간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유아수업뿐만 아니라 성인문해수업과 재봉수업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국가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설계될 것이며, 르완다 교육부가 개발한 교수-학습도구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우루무리 센터의 개소 후에는 카부무 마을에서 약 246명의 학습자들(유아수업 164명, 문해수업 25명, 재봉수업 57명)이 센터에 등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웃 마을의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b.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주인의식

마을 이장들이 참여하는 브릿지 지역학습센터 운영위원회는 센터에 대한 강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학습센터 운영위원회는 매주 함께 모여 지역학습센터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센터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학습센터 운영위원회는 임시 센터의 문과 창문을 설치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기금을 모집하기도 하고, 센터의 화장실도 수리하였습니다. 한편 모든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센터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해줄 교복을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민들은 브릿지 센터의 건축을 위한 부지를 미리 일구는 데 일손을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브릿지 지역학습센터가 들어설 예정인 부게세라 시(district)는 센터 건립을 위한 모든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입찰 과정과 실행가능성 연구, 업체계약 등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습니다.

“임시 센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 받았을 때, 브릿지지역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저는 유아수업에 대한 수요를 측정하고 임시 센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마을 이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후 지역학습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돕고, 정기 회의의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브릿지 임시 센터에서 근무할 보육 교사 (caregiver)를 선발하기도 했습니다.”
(가하마니 유진 Mr. Gahamanyi Eugene, 마안게 구(sector) 교육담당관)



스와질란드

성과 개요

a. 프로젝트 개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스와질란드위원회는 지난 2016년 2월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구성된 스와질란드 브릿지자립위원회에는 브릿지 사업의 세 가지 교육 영역과 연관된 정부 부처나 기관 소속의 11명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브릿지자립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브릿지 스와질란드 프로젝트의 성공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 브릿지 스와질란드 프로젝트는 두 곳의 지역학습센터-구게자(KuGeza) 센터와 엠흘랑에니(Emhlangeni) 센터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은 사전현장조사를 통해 기존의 시설을 선정하고 활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에는 같은 방식으로 시셀웨니(Shiselweni) 지역의 은쿱위니(Nkhungwini) 센터가 세 번째 브릿지 지역학습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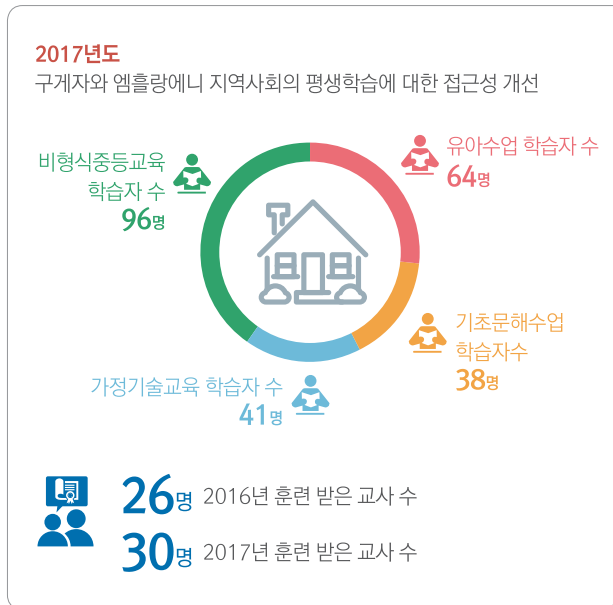
구게자 센터에서는 교실을 신축하여 이웃 마을 주민들에게까지 유아교육과 기초문해, 재봉, 비형식중등교육(NfSE)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10월에는 교실 두 개를 추가로 증설할 예정입니다. 엠흘랑에니 센터는 새롭게 보수된 두 곳의 교실을 활용하여 2017년 11월부터 유아, 기초문해, 재봉, 비형식중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부터 새로운 교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형식중등교육은 브릿지 사업 중 하나인 브릿지참여사업(Bridge Participation Project)의 지원을 받아 가까운 고등학교 시설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2018년부터는 브릿지 지역학습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b. 스와질란드 브릿지 지역학습센터: 구게자(KuGeza), 엠흘랑에니(Emhlangeni)

프로젝트 계획 단계였던 지난 2016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센터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스와질란드 브릿지자립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브릿지 자립위원회는 총 4곳 - 4개의 주(province)에서 한 곳씩 - 의 센터를 선별하여 이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스와질란드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브릿지 지역학습센터는 스와질란드브릿지자립위원회가 마련한 심사 기준에 따라 2016년 9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어 2017년 9월에는 시셀웨니 지역에 세 번째 브릿지 센터를 세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네 번째 브릿지 지역학습센터도 추가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구게자와 엠흘랑에니 두 곳의 센터에서는 4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습니다. 현재 (1) 유아교육, (2) 문해교육, (3) 가정 기술교육과 재봉수업, (4) 비형식중등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형식중등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 2017년 브릿지참여사업을 통해 계획 및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학교 밖 아동들과 청소년 및 성인들의 교육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입니다. 한편 기초문해수업 학습자들은 매년 세벤타 국가문해기관(Sebenta National Institute) - 기초교육 및 비형식교육, 직업교육훈련 소관 - 에서 실시하는 문해 시험에 응시하기도 합니다.



상호학습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

a. 브릿지자립위원회의 기여

스와질란드 브릿지자립위원회의 기여는 브릿지 스와질란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비결이자 원동력 이었습니다. 스와질란드 브릿지자립위원회는 유네스코스와질란드 위원회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유아교육, 문해교육, 직업교육훈련,

비형식교육 분야의 전문가, 세벤타 국가문해기관 관계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파견한 브릿지 프로젝트매니저로 구성 됩니다. 브릿지자립위원회에 속한 총 11명의 위원들은 브릿지 스와질란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전문성에 따라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브릿지자립위원회 내에서 자신의 분명한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매번 회의를 할 때마다, 위원들은 100%의 참석률을 보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일로 바쁜 스케줄을 보내고 있음에도, 아무런 금전적 보상 없이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이 프로젝트에 기꺼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현재 몸담고 있는 수많은 프로젝트들 가운데 브릿지 프로젝트가 단연 최고의 성공사례 중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니스트 스멜라니 Mr. Earnest Simelane, 브릿지자립위원회 위원장, 교육훈련부 예비직업교육부서 선임 장학관)

매년 새로운 브릿지 지역학습센터가 선정될 때마다 브릿지 자립위원회 위원들은 평가를 위해 모든 후보 센터들을 직접 방문합니다. 지난 2017년 9월에는 브릿지자립위원회가 세 번째 센터를 결정하기 위해 은콩위니 지역 내 총 6곳의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b. 지역사회의 참여와 주인 의식

구게자 지역사회는 브릿지 지역학습센터로 선정되기 위해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브릿지자립위원회가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했을 당시 구게자 마을에는 교육 활동을 위한 제대로 된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2005년 마을을 휩쓴 강한 폭풍으로 기존에 있었던 센터가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브릿지 센터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교육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브릿지자립위원회로부터 전해들은



• 스와질란드 브릿지자립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스와질란드위원회

후, 주민들은 함께 작은 교실 하나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자립위원회가 다시 마을을 방문했을 때에는 새로운 건물 하나가 완공되어 있었습니다.

브릿지 스와질란드 프로젝트의 지원으로 이제는 3개의 교실과 1개의 사무실, 2개의 화장실과 더불어 운동장이 생겼습니다. 현재 2세 아이부터 50세 여성까지 총 90명 이상의 학습자들이 센터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 브릿지 지역학습센터에 대해 상당히 진지합니다. 이 센터를 유지하기 위해 은행 계좌를 열어 각 가구별로 조금씩 돈을 걷어 모았습니다. 가구당 한 달에 33 에말랑게니의 돈을 기부하도록 권장하며, 실제 약 70% 이상의

가구가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센터가 더 확장되어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브릿지 센터는 구게자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센터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날이 오리라 굳게 믿습니다.”

(기신자 음푸멜헬로 Mr. Ginindza Mphumelelo, 부코포 Bucopho)

c. 현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

비형식중등교육은 브릿지아프리카프로그램의 핵심 교육 영역은 아니지만, 스와질란드 브릿지자립위원회는 브릿지 참여사업의

● 스와질란드 구게자 지역학습센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스와질란드위원회



지원을 바탕으로 중등교육 중퇴자를 위한 수업을 개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높은 중등교육 중퇴율은 스와질란드가 당면한 과제였지만, 비형식중등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스와질란드 전국에 단 한 곳 뿐이었습니다.

세벤타 국가문해기관과 더불어 두 곳의 브릿지 지역학습센터에서 비형식중등교육 수업을 개설하였습니다. 수업은 센터에 인접한 공립 고등학교의 교사들이 직접 진행합니다. 2017년에는 구게자 센터에서 75명, 엠흘랑에니 센터에서 21명의 학습자들이 등록하였습니다. 수업을 수강한 이후에 학습자들은 중등 수학 능력 시험(Junior Certificate)과 고등 수학 능력 시험(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시험의 6과목을 통과할 경우에는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민들은 이 비형식중등교육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내년에 수업에 등록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형식중등교육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와질란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혼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그 원인입니다. 비형식중등교육 수업 수강자들은 수업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으며 제가 공립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보다 학업에 대한 열의가 더 대단합니다.”

(잔딜레 맘바 Ms. Zandile Mamba, 이난자(Inyandza) 고등학교 교사)

“저는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같은 해에 임신도 하게 되어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했지만 짧은 가방 끈으로는 그것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학교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모든 수업을 마치고 시험을 통과하면, 저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대만의 의학 대학에 지원할 것입니다. 저희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저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응원해 주십니다.”

(위닐레 루켈레 Ms. Winile Lukhele, 비형식중등교육 수강자)

● 스와질란드의 비형식중등교육 수업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스와질란드위원회



잠비아

성과 개요

a. 프로젝트 개요

브릿지 잠비아 프로젝트는 지난 2010년에 시작하여 2019년 3월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브릿지 사업은 아직 정부 서비스의 손이 닿지 않는 지역의 성인들에게 문해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을 병행적으로 제공하려는 잠비아 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브릿지 잠비아 프로젝트에는 여러 파트너들이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잠비아위원회, 일반교육부 원격교육국(Ministry of General Education's Directorate of Open and Distance Education), 직업훈련청(Technical Education, Vocational and Entrepreneurship Training Authority; TEVETA), 마자부카(Mazabuka) 교육청, 총궤(Chongwe) 교육청, 카퓨에(Kafue) 교육청, 마자부카 평생교육학교, 네가-네가 지역사회 - 기여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네가-네가 지역학습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자들에게 문해와 산술 능력을 동시에 함양시키는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해-직업훈련 연계 교육 구조 덕분에 브릿지 센터의 건축에 참여한 19명의 주민들이 벽돌미장 기술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외에도 26명의 여성 학습자들은 브릿지 센터에서 배운 문해와 산술 능력을 바탕으로 재봉 및 디자인 기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학습자들이 기술과 자격증을 동시에 얻게 되었습니다.

네가-네가 센터와 더불어, 브릿지 잠비아 프로젝트는 3개 구(district)의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성인문해방법론과 정보기술(ICT)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의 문해 강사로서의 역량이 보다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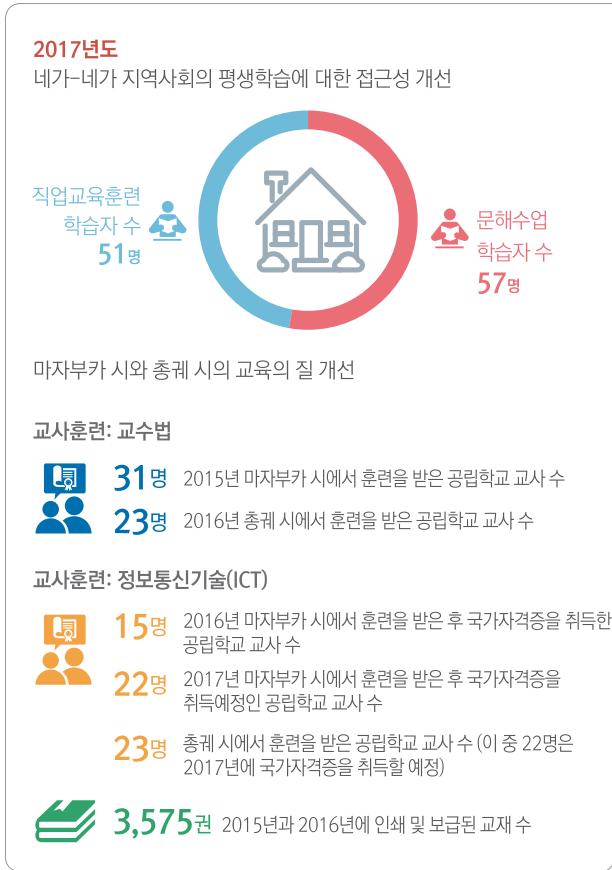


• 잠비아의 정보통신기술(ICT)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잠비아위원회

b. 잠비아 브릿지 지역학습센터: 네가-네가

브릿지 잠비아 프로젝트는 네가-네가 지역학습센터에서 성인 문해와 직업훈련을 융합시킨 2단계(two-tier) 교육 구조를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네가-네가 지역학습센터는 2015년 설립되어 (1) 성인문해수업, (2) 디자인 및 재단, 재봉수업 (3) 벽돌미장 기술 수업 등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벽돌미장 기술 수업에 참여한 첫 수강생들은 네가-네가 센터의 건축현장에서 직접 땀을 흘려가며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네가-네가 지역학습센터에서는 공립학교 교사들이 직접 57명의 문해 학습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51명의 학습자들이 재봉과 벽돌쌓기, 미장 기술로 잠비아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비아 브릿지자립위원회 구성원 중 하나인 직업훈련청은 국가공인 기술 교육 과정을 제공해주었고, 학습자들이 네가-네가 센터에서 자격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습니다. 이처럼 학습자들에게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림으로써, 수강생들이 미래에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호학습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

a. 정규 교육 시스템과의 연계

잠비아에서 대부분의 문해교육 프로그램들은 공립학교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학교 교사들이 주로 방과후에 이 문해수업을 진행하고 합니다. 따라서 공립학교 교사들은 성인 대상 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별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브릿지 프로젝트는 54명의 교사들이 네가-네가 지역에 위치한 마자부카 시(district)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 2015년 12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잠비아 일반교육부 원격교육국에서 제공해주 교수방법론(teaching methodology)

연수에 참가하여 어떻게 성인들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브릿지 센터에서 배움에 대한 열의에 가득 찬 성인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 함위야 Ms. Abigail Hamwiya, 네가-네가 동초등학교 교사)

이처럼 브릿지 프로젝트를 통해 네가-네가 센터의 교사들 뿐만 아니라 마자부카시의 23개 학교 교사들도 역량강화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성인 학습자들이 훈련 받은 교사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성인문해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공립학교 교사를 훈련시켜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교사를 채용하고 훈련하는 것보다 효율적입니다. 네가-네가 지역학습센터는 잠비아 정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국가교육과정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 성인들은 아이들보다 학습 속도가 더 빠를 뿐만 아니라, 학습 내용 면에서도 성인과 아동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레벨1과 레벨2로 구성된 별도의 성인문해교육과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일반 초등학교 교육과정과는 다릅니다. 레벨2 과정을 마친 후에 만약 학습자가 학령기에 속해 있다면, 초등학교 5학년으로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학령기가 아니라면 학습자들은 정규 교육 시스템 밖에서도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를 ‘열린 학습(open learning)’이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 학습자들은 7학년과 9학년, 12학년 수준의 국가 시험을 응시할 수 있고, 12학년 시험을 통과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장에 상응하는 일반교육 수료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다섯 과목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일반교육 수료증 취득 후에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됩니다.”

(브렌다 무산야 무덴다 Ms. Brenda Musanya Mudenda, 일반교육부 원격교육국)

이처럼 네가-네가 지역학습센터의 수업들은 국가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문해 프로그램의 레벨2를 마친 학습자들은 잠비아 공교육제도로 복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제 국가제도의 틀 안에서 고등교육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b. 브릿지자립위원회와 직업훈련청

잠비아 브릿지자립위원회는 브릿지 프로젝트와 연관된 유관 정부 부처들과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브릿지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에 브릿지 프로젝트의 영향력과 가시성을 보다 더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 예로, 브릿지자립위원회 참여기관 중 하나인 직업훈련청은 네가-네가 지역학습센터에서 학습자들이 국가 자격 시험을 치를 수 있게 승인해 주었습니다.

“ 네가-네가 지역학습센터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성인들이 읽고 쓰는 법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센터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벽돌쌓기 훈련 수업을 수강했는데, 19명의 학생들 중 4명이 현재 루사카(Lusaka)에 있는 중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 자격증이 좋은 직장을 구하는 데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전합니다. 또 다른 2명은 현재 초마 기술훈련소(Trades Training Institute in Choma)에서 상위 레벨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3명은 마자부카에서 일하고 있으며, 2명은 델타 농장(Delta Farm)에, 나머지 수강생들은 우리 마을에 남아 배운 기술을 토대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미셸 물룰루 Mr. Micheck Mululu, 네가-네가 센터 재봉수업 학습자)

올해 네가-네가 센터의 51명의 학습자들이 국가자격증 취득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7년 8월에는 20명의 디자인 및 재단, 재봉 훈련생들과 9명의 벽돌미장 훈련생들이 국가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올해 11월과 12월에 있을 시험에도 또 다른 22 명의 훈련생들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 잠비아 네가-네가 지역학습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잠비아위원회





2016 Bridge Writing Festival



MIERA LEARNING CENTRE
ESTABLISHED IN 2011
Vision
Bring out as many people as possible to participate in learning activities
Activities

Write
Things
EXAM
1 5
2
3 4
5



시사점 및 교훈

● 말라위에서 개최된 2016 브릿지 백일장에서 자신이 지은 시를 발표하고 있는 학습자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말라위위원회





시사점 및 교훈

a. 지역사회의 주인의식과 참여는 지역학습센터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55명의 브릿지 활동가를 파견했습니다. 활동가들은 6개 아프리카 국가의 소외된 지역에서 생활하며, 마을의 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주민들이 스스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었습니다. 활동가들은 지역사회의 마을 이장, 교사, 학부모들이 모여 지역학습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역학습센터 운영위원회는 브릿지 프로젝트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브릿지 지역학습센터를 그들의 자산으로 여길 때에야 비로소 주민들은 센터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의 질에 대해 보다 강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라위의 나피니, 레소토의 하무추, 스와질랜드의 구게자 센터처럼 주민들이 직접 센터 건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주인의식과 센터 운영의 지속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레소토 하무추 센터에서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지역학습센터의 교육 활동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무추 센터의 유아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는 하루에 두 번 식사가 제공되는데, 학부모들이 이 급식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센터에 직접 작물을 심기도 하고 일정 금액을 기부하기도 합니다.

b. 지역학습센터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교육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릿지 지역학습센터는 폭넓은 연령층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유아교육과 문해교육, 직업교육훈련, 방과후수업, 비형식중등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트너국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는 브릿지 교육 영역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을 선별한 후, 그들을 브릿지 자립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브릿지 자립위원회는 센터의 교육과정을 국가교육 정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보재 및 교사훈련 제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브릿지 지역학습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기도 합니다.

2017년에는 각 파트너국의 브릿지자립위원회가 분기별 평균 두세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더불어 각 위원회는 매년 국가 워크숍을 주최하여 지역학습센터가 그 동안의 프로젝트 성과와 교훈에 대해 고민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주기도 합니다.

브릿지자립위원회는 지역학습센터와 국가교육제도 간에 다리(bridge)를 놓아주기 때문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학습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이 국가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때, 학습자들이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다시 공교육 제도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c. 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브릿지아프리카프로그램의 초창기 목표는 지역사회에 문해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실제 교육 수요에 대한 고민 끝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문해교육 외에 추가적인 교육 활동들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트너국의 대다수 공립 혹은 사립 지역학습 센터들은 문해교육이나 유아교육 중 한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말라위의 경우, 정부가 약 2만 개 이상의 지역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1만여 개의 센터는 공립학교 시설을 빌려 문해교육만 제공하고 있고, 나머지 센터들은 유아교육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주민들에게 강한 참여 동기를 부여하기 어렵고, 지역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을 소유의 지역학습센터 없이 공공시설을 임시로 빌려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경우, 주민들이 센터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브릿지

지역학습센터는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지리적으로도 해당 지역 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사업의 원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브릿지 활동가들은 처음 문해수업을 운영하면서, 성인학습자들의 경우 주간에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성인 여성들이 센터에 오려면 그들의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브릿지 지역학습센터는 유아교육, 문해교육, 직업교육훈련에 더해 방과후수업, 특수교육, 비형식직등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주민들이 각자의 생활환경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 파트너국 유네스코 국가위원회가 주도하는 범정부적 협력은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합니다.

브릿지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사업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서는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 파트너들(유네스코한국위원회, 파트너국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프로젝트매니저, 프로젝트 담당자, 지방정부, 지역사회 등) 간의 협력을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하며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는 브릿지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이해관계자들을 선별하고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각 파트너국의 유아교육, 문해교육,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정보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보츠와나는 교육부가 기초교육부(Ministry of Basic Education)와 고등교육부(Ministry of Higher Education)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보츠와나위원회는 고등교육부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을 주관하는 기초교육 부서의 담당자를 보츠와나 브릿지자립위원회 위원으로 초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브릿지 마오타테 센터가 성인문해교육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 파트너국 및 지역학습센터 간의 상호 학습으로 프로젝트는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역학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은 자국 내 다른 브릿지 센터 현장을 방문하여 상호학습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각 지역학습센터의 수업을 참관하고,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행정 및 재정과 관련된 센터 운영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한 예로, 말라위의 나피니 센터는 센터의 설립 및 등록 관련 절차를 다른 센터 관계자들에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2016년 2월 말라위 릴롱웨에서 개최된 브릿지 아프리카 컨퍼런스에는 브릿지 파트너 8개국(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스와질란드, 잠비아, 짐바브웨)에서 온 109명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참가자들은 국별 브릿지 프로젝트에 대한 각자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사업 진행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지금까지 만들어낸 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9개국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의 사무총장들은 브릿지아프리카프로그램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재확인하는 〈릴롱웨 코뮤니케(Lilongwe Communiqué)〉를 채택하였습니다.

대부분의파트너국들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각 국가의 정부 관계자들은 자연스럽게 이웃 국가의 교육 정책과 제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브릿지아프리카프로그램은 상호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파트너국 및 지역학습센터 간 현장 방문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 말라위 릴롱웨에서 개최된 브릿지 아프리카 컨퍼런스에서 자신의 브릿지 프로젝트 경험을 소개하는 한 참가자, 2016년 2월 17일-19일,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말라위위원회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양질의 교육)과 세부 목표

■ 목표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7개 세부 목표(Outcome Targets)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초등 및 중등교육을 무료로 동등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의미 있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 달성에 이여지도록 한다.



4.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초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양질의 영유아 발달과 보호, 취학 전 교육에의 접근을 보장한다.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이 양질의 적절한 기술훈련, 직업훈련, 대학을 포함한 3차 교육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기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을 포함한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청소년과 성인 수를 대폭 늘린다.



4.5.

2030년까지 교육에 대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모든 수준에서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4.6.

2030년까지 남녀불문 모든 청소년과 대다수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4.7.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지속 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행 수단(Means of Implementation)



4.a.

모두를 위해 아동, 장애, 성별을 배려한 교육 시설을 건축하고 개선하며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4.b.

선진국 및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 기술 · 공학 · 과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도국, 아프리카 국가에 전달되는 장학금의 수를 전 세계적으로 대폭 늘린다.



4.c.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도국의 교원훈련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교원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Botswana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Lesotho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Malawi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Rwanda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Swaziland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Zambia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